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1. ⑦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목적이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와 같은 현대 사회의 실질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윤리학자들은 윤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덕적 개념의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분석을 윤리학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⑦고 생각한다.

- ① 윤리학의 목적은 도덕 현상을 기술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 ② 도덕적 관행을 역사적·문화적으로 탐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③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규명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④ 윤리학은 구체적인 윤리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은 완성되었을 때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이지만,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나쁜 동물을 전락하고 만다. 인간은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중요한 공동체, 즉 국가의 정의를 통해 구원받는다.

<보기>

- ㄱ. 개인은 국가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ㄴ.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려는 자연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 ㄷ. 국가는 시민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이다.
- ㄹ. 국가의 목적은 시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 보장에 한정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할 공직자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렴한 것은 목민관의 본연의 임무로 모든 덕행(德行)의 근본이 된다. 청렴하다는 것은 천하의 큰 장사[大賈]이다. ... (중략)... 백성의 고혈을 빼는 사람만이 탐관(貪官)이 아니다. 목민관은 먹을 것과 선물 보내온 것 모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목민관의 임무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롭다. 자애롭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 ① 자애로움은 절용(節用)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한다.
- ② 청렴이 참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③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은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
- ④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않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 ⑤ 덕행의 근본이 되는 청렴의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4.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와의 가상 인터뷰이다. ⑦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덕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② 연기(緣起)를 깨달아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③ 자연의 덕을 본받아 무위(無爲)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④ 좌망(坐忘)을 통해 절대 자유의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 ⑤ 성왕(聖王)이 제정한 예법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5.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정언 명령은 내가 비록 다른 어떤 것도 의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함을 말한다. 유일한 정언 명령은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다.

<문제 상황>

A는 일과 후에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불편한 몸으로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자리를 양보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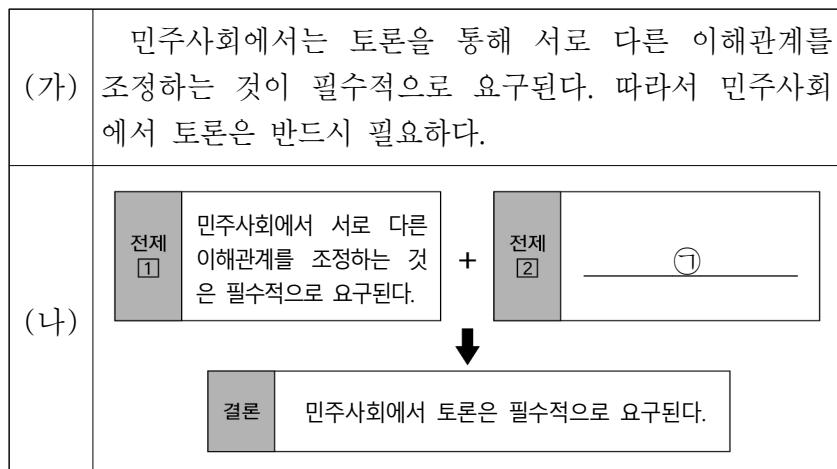
- ① 유덕한 행위를 습관화한 사람을 본받아 행동하세요.
- ② 의무 의식에 따르기보다 자연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③ 관련된 사람들에게 최대의 쾌락이 산출되도록 행동하세요.
- ④ 실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타당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전통을 의무로 받아들여 행동하세요.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고 2

6.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⑦을 지지할 근거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
- ㄷ. 토론을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ㄹ. 토론을 통해 인식과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뇌는 인간 생명 활동의 핵심 기관이다. 따라서 모든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함에 따라 인간 고유의 이성적 활동과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여 연명 기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는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장기 이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을: 심장과 폐는 인간 생명 활동의 핵심 기관이다. 따라서 심폐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어 인체의 각종 기관에 불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난 경우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것이다.

<보기>

- ㄱ. 갑: 뇌사 인정은 뇌사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ㄴ. 을: 실용적 관점에서 죽음의 판정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 ㄷ. 을: 심장과 폐를 제외한 기관의 영구 정지는 죽음이 아니다.
- ㄹ. 갑, 을: 인간 생명 활동의 핵심 기관이 지닌 기능의 영구 상실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물이 느끼는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동일한 양의 고통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우월한 정신 능력을 근거로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① 사고 능력이 없는 동물에 국한해서 실험을 허용해야 한다.
- ② 동물 실험에서 이익 고려의 범위는 인간으로 한정해야 한다.
- ③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④ 동물은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므로 동물 실험을 허용해야 한다.
- ⑤ 생태계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 자신의 자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에 대한 긍정’은 ‘우리 자신의 사랑의 능력’, 곧 보호, 존경, 책임, 지식에 근원이 있다. 만일 어떤 개인이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오직 다른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 ①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② 사랑은 능동적 활동이기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서로를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④ 사랑의 기술을 갖춘 사람은 타인은 물론 자신도 사랑할 줄 안다.
- 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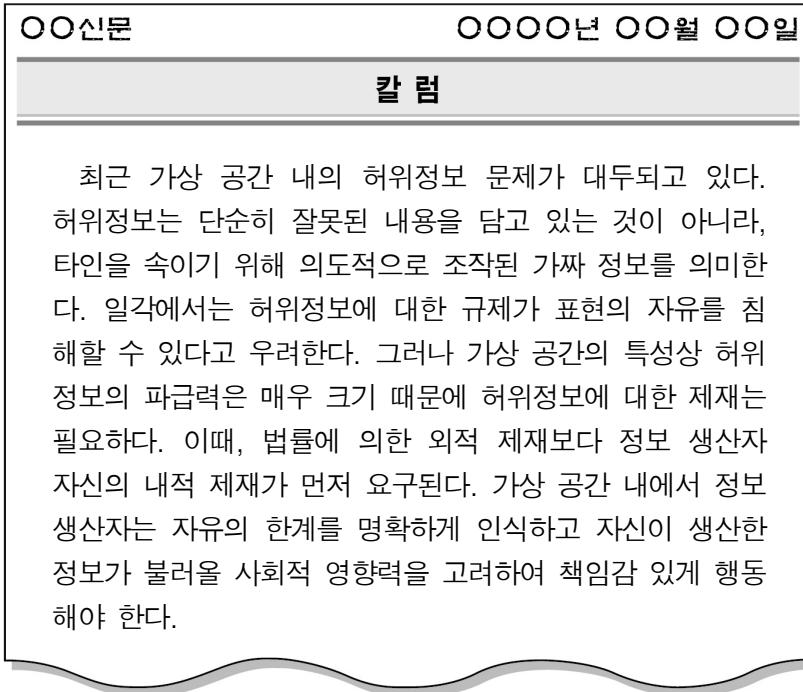
현대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감안할 때 두려움의 느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윤리적 의무이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나는 이를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명명한다.

<보기>

- ㄱ. 기술의 진보가 초래할 위험보다 희망에 주목해야 한다.
- ㄴ. 인류 존속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은 무조건적 의무이다.
- ㄷ. 현세대는 예견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ㄹ. 인간의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를 도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 신문 칼럼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상 공간 내 표현의 자유를 조건 없이 존중해야 한다.
- ② 정보 생산자는 윤리 의식을 가지고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 ③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제재를 내적 제재보다 우선해야 한다.
- ④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통제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 ⑤ 잘못된 정보는 조작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재해야 한다.

1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분배 정의의 충분 조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이므로 소유 상태는 합법적 경로를 통해야만 한다.</p> <p>을: 사회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이 원칙들은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p>
(나)	

<보기>

- ㄱ. A: 분배 결과의 차등은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 ㄴ. B: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 ㄷ. B: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는 절차의 공정성에서 비롯된다.
- ㄹ. C: 복지 증진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유권 침해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3.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난치병 치료를 주목적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배아 복제는 정당하다. 배아는 생명체로서 존중해야 하지만, 인간과 달리 배아에게는 도덕적 지위가 없기 때문이다.

을: 난치병 치료를 주목적으로 환자의 성체를 이용하는 줄기세포 연구는 정당하다. 하지만 배아 복제는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 배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① 배아 복제는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③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일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 ④ 어떠한 배아 복제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 ⑤ 배아는 잠재적 인간으로서 불가침의 권리를 지님을 모르고 있다.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음[善] 자체를 보게 되는 철인(哲人)들은 그것을 근본으로 삼아 변갈아 가면서 나라와 개인들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여생의 대부분을 철학하며 지내지만 차례가 오면 통치자가 된다. 이들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것 이 훌륭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① 통치자는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
- ② 구성원이 각자의 직분만을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③ 통치의 주체가 된 철인은 국가 전체의 선을 실현해야 한다.
- ④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해 사회 계층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
- ⑤ 국가는 구성원 각자가 본분에 맞는 덕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울 수 있다.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은 한낱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경향성의 모든 대상은 단지 수단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사물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인간은 인격이라고 부른다.

을: 인간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이 의무의 근거는 그들이 자신의 본성 자체에 의해서 갖는 가치, 즉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는 것에 있다.

<보기>

- ㄱ. 갑: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동식물을 이용하면 안 된다.
- ㄴ. 갑: 동식물에 관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비롯된다.
- ㄷ. 을: 고유의 선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 ㄹ. 갑, 을: 도덕적 지위 유무는 도덕적 행위 능력에 달려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고 2

16.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시민 불복종은 분명히 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감에 대한 호소이고, 공인된 협동의 원리를 환기시킨다.</p> <p>을: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양심적인 사람조차도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p>
(나)	<pre> graph TD A{A} -- 예 --> B{B} A{A} -.- 아니요 -.> C{C} B{B} -- 예 --> G1[갑의 입장] C{C} -- 예 --> G2[을의 입장] subgraph "법 레" direction TB L1[출발 조건] L2[판단 내용] L3[판단 방향] L4[사상가의 입장] end </pre>

<보기>

- ㄱ. A: 법에 대한 양심적 거부는 모두 시민 불복종에 해당하는가?
- ㄴ. B: 모든 부정의한 법과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가?
- ㄷ. B: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
- ㄹ. C: 부정의한 법에 대한 즉각적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형벌은 언제나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가해져야 한다. 또한 동등성의 원리를 공적인 정의의 원리와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을: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종신 노역형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보기>

- ㄱ. 갑: 형벌 집행의 목적은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 ㄴ. 갑: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는 합당한 형벌이다.
- ㄷ. 을: 형벌의 효과는 형벌의 강도보다 그 지속성에 달려 있다.
- ㄹ. 갑, 을: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기 때문이다.

을: 삶과 죽음은 명(命)이다. 사계절이 변하듯이 기(氣)의 변화 과정에서 삶과 죽음이 바뀌는 것이므로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 ① 갑: 인간에게 있어 참된 인식은 죽음 이후에야 가능하다.
- ② 갑: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
- ③ 을: 죽음은 기가 흘어지는 것으로 자연적인 과정의 일부이다.
- ④ 을: 삶과 죽음을 분별하고 자신의 현재 삶에 충실해야 한다.
- ⑤ 갑, 을: 현세에서의 의도적 행위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

19.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으로 그러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다.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기술은 인간과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없다.

을: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경우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 ① 인간은 기술에 종속당하지 않도록 기술을 성찰해야 하는가?
- ② 기술 자체는 윤리적 규제와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 ③ 기술 자체의 비인간적이며 비윤리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하는가?
- ④ 기술은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가?
- ⑤ 기술은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의 영역인가?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개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다. 그러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하고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그로 인해 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 ① 집단 간 관계는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 윤리적 관계이다.
- ② 사회 정의는 집단 간 힘의 균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 ③ 개인의 선의지를 고양하는 것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 ④ 도덕적 개인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 ⑤ 집단의 이기심을 제재하기 위해 정치적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